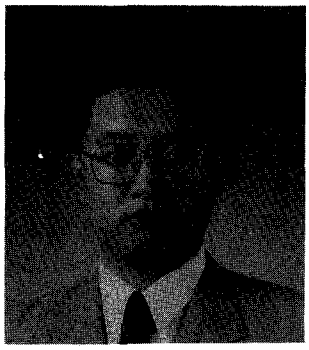
긴급제언

IMF시대 국산녹용 판로 활성화와 방안



민 경 두
약업신문 취재부 차장

한국은 가히 녹용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뉴질랜드를 비롯한 중국·미국·러시아·카나다·북한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녹용이 수입된다. 이같은 수입녹용 중에는 밀수도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통관실적 기준만으로는 정확한 수입량을 어림잡기도 힘든 상황이다.

녹용의 연간 수입량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밀수를 포함, 통상적으로 약 1백30톤에서 1백50톤 안팎의 물량이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수입량은 국내 사슴사육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량(97년말 현재 40톤 안팎)에 거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수입녹용이 국내 녹용시장(한약재)을 사실상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은 국산녹용이 한의약계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밀수녹용은 가격담합을 통한 이른바 「뒷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빌미를 만들어 국산녹용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국가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라는 최대위기를 맞으면서 녹용시장은 국산·수입산을 가릴것 없이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생존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밀수녹용이 어려움 가중

수입녹용중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수녹용은 그야말로 국산녹용이 한의약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 공식 집계된 녹용수입량은 91년 82톤, 92년 1백6톤, 93년 1백17톤, 94년 1백30톤, 95년 1백49톤, 96년 83톤, 97년 1백톤(추정) 등의 추이를 보이고있다.

91년부터 95년까지는 비교적 꾸준한 신장세를 이어오던 수입량이 한약재 규격화 제도가 시행된 96년들어 갑자기 절반가까이 줄고 97년 들어서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식 수입물량의 기복이 심했던 96,97년의 수입량 수치에는 「밀수」라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한국무역통계의 집계에 따르면 녹용수입이 집중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공식 수입물량은 뉴질랜드 50톤을 비롯, 호주 6.3톤, 중국 3.9톤, 러시아 3.7톤, 카나다 3.5톤등 총 72톤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 수입물량에 대해 관련 무역업체 및 유통업소들은 대부분 밀수의 증가를 반영하는 증거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경우 현지의 녹용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이같이 생산된 녹용이 거의 대부분 한국으로 수출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수입통계치와 차이가 나는 생산물량은 밀수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한국의 뉴질랜드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수입된 물량에 해당하는 96년 10월부터 97년 2·3월까지의 뉴질랜드 현지의 생산녹용은 1백77톤에 달했다. 이는 97년 8월말 현재 공식 집계된 뉴질랜드 수입녹용 50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녹용 수입업소들은 8월이면 한해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수입된다는 점을 지적, 공식통계치와 생산물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밀수임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96년도 국내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95년 10월부터 96년 3월까지의 뉴질랜드 현지에서 생산된 녹용도 1백93톤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96년 뉴질랜드 녹용 수입물량인 42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녹용이 바다에 버려지지 않는한 생산량과 수입량의 차이는 밀수일 수 밖에 없다는 관련업소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입녹용이 국내 한의학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밀수녹용이 국내 녹용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짐작이 가는 일이다. 밀수녹용은 외국산 녹용의 국내 유통가격을 지금과 같이 저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수녹용은 이처럼 국산녹용이 한의약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국산녹용이 수입녹용을「극복」하기 위해서는 밀수녹용을 먼저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여기에 있다.

한의약시장 진출「타진」모색

국산녹용이 한약재 시장에 진출하는데는 이처럼 큰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국산녹용이 국내 한약재 시장에 진출하는 길은 결국 수입녹용 물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길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가지 방안 모두 실현성이 희박하다. 또 밀수녹용도 근절해야 하지만 검찰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근원적인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산녹용이 한의약계에 진출하는 빠른 첩경중의 하나는「자구노력」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시장확대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한의약계 일부에서는 다행히 국산녹용의 품질을 서서히 인정해 가는 추세에 있다.

국산녹용이 한의약계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관문은「품질」과「가격조건」으로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국산녹용은 가격조건과 함께 객관적인「품질인증제도」를 양록농가들 스스로 제도화 해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내 사슴사육 농가들은 한의약계에서 항상 시비거리가 돼온 녹용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확고히 갖추기 위한 뼈

를 깎는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산녹용의 품질이 저급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품질이 저급하지 않다는 사실이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여론화되는 작업은 반드시 요청되고 있는 대목이다.

양록업자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시험을 통해 국산녹용의 객관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녹용을 생산하는 녹용의 품질인증제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MF의 이중고와 대응책

녹용은 현재 국가경제의 부도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한 IMF시대하에서 더욱 소비가 위축돼 앞으로 더 큰 곤경에 처할 것이 확실시된다. IMF관리하의 우리경제는 불요불급한 소비시장이 완전히 냉각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한파를 가장 먼저 탄다고 하는 한약재시장은 사실상 최대의 한파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약재시장에서는 이미 보약의 판매 뿐만 아니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마저도 거래가 사실상 끊겨 상당수 한약재가 자취를 감추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보약의 대명사이자 속칭 한약재의 왕자라고 통칭돼온 녹용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수입녹용은 환율의 단기폭등으로 거래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처해 있다.

국산녹용이라고 해서 IMF의 위기를 피해나갈 수는 없다. 이른바 「몸보신」이라는 이름 또는 보약과 유사한 형태로 축산물 소비시장을 형성해온 국산녹용은 IMF체제하에서 그 위기의 예봉을 피하기 어렵게 돼 있다. 오히려 국산녹용이 더욱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IMF체제하에서 국산녹용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기혁신 이외에는 방안이 없다. 그 자기혁신의 시작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생명력을 단축하는 일을 최소한 자제하는 일에서 부터 시작된다.

가령 일부이지만 수입생녹용이 사육농가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자해행위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공동으로 막아나갈 필요가 있다. 무게만을 늘리기 위해 절각시기를 너무 늦추는 일은 더욱 삼가해야 하고 사육비를 절감키 위해 사료나 사육조건 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도 조심해야 할 일이다.

한의약계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국산녹용을 「돼지우리 사슴」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해왔다. 양록농가들은 그것이 일부의 주장이라고 해도 한번쯤 상기할 가치를 느껴야 할것으로 본다. 어려울 수록 그리고 위기일수록 「정도」를 가면 그 위기를 타개할 길이 보인다는 말을 새김질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한의원·한약방·약국등 녹용의 실수요자들도 어려운 경제체제하에서 반드시 수입녹용만을 사용해야 하는 가를 되짚어 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수입녹용이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국가부도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굳이 외화를 낭비할 이유가 있는가를 자문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록농가들은 바로 이들 한의약계에 손만 벌리는 안일한 자세를 갖는 것이 금물이다.

녹용을 축산물이나 녹혈로 적당히 팔아서 안주하려는 자세를 완전히 탈피해 「한약재 시장에서도 국산녹용으로 자급자족 시대를 연다」는 보다 차원높은 이상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양록업계는 한의약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졌다.

향후진로와 위기타개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지난 연말에 녹용의 회분시험 함량 시험결과를 내놓은 바에 따르면 수입산이나 국산 모두 평균 회분함량이 그리 적게 나오지는 않았다. 이 시험결과에 따르

면 국산녹용 전지의 경우 회분 평균함량은 매화록이 37.7%, 엘크는 30.4%가 각각 나왔다.

물론 회분함량이 녹용의 품질에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녹용은 회분함량 이외에 다른 좀더 많은 성분들이 품질의 종합적인 잣대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실수요자인 한의약계가 그러한 국산녹용의 회분함량 자체 마저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의약계에서는 회분함량을 따지기 이전에 거의 이유를 불문하고 국산녹용을 사용치 않으려는 풍조가 관행화 되어 있다. 이에대해 양록업계는 한의약계가 속된 말로 돈을 벌려는 목적 때문에 국산녹용 사용을 기피한다는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위기를 타개하려는 태도가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양록농가는 이론과 현실의 엄연한 장벽을 우선 이해하려고 하는 「성의 있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현실의 높은 장벽을 이해하려는 능동적인 자세는 그 현실이 비록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양록농가 스스로의 잘못된 점도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국산녹용은 이제 협회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슴의 사육기준」과 「녹용의 품질보증 기준」을 만들어 내야 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사슴을 사육하고 녹용을 생산해야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때다.

국산녹용이 다른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신토불이」라는 이름아래 객관적인 품질기준이 정착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도 일정량은 소진될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한의약계는 국내 양록농가들이 이같은 성의를 표해오길 은연중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양록업계가 정성껏 벌이는 성실한 노력들은 수입산 및 밀수녹용이 장악하고 있는 한의약계 시장의 닫혀있는 「빗장」을 열수 있는 지름길로 지적되고 있다. *

● **참고자료**

97년 1월~10월까지 수입 생녹용 검역실적

국 가	검 역 실 적			양당가격 (원)
	건 수	중 량 (kg)	외 화 액 (U$)	
호 주	4	6,341	208,670	1,138
카 나 다	3	4,423	457,905	3,571
뉴질랜드	1	3,336	199,369	2,067
합 계	8	14,100	865,944	2,118

※ 휴대품 제외, 양당가격 1달러 920원 환산 (국립동물검역소)

불법 수입 생녹용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 **신고전화 : (02)969-6600(대표)**